

2023 아르코미술관 기획초대전

《노원희: 거기 계셨군요》

2023. 8. 11 — 11. 19

아르코미술관 제1, 2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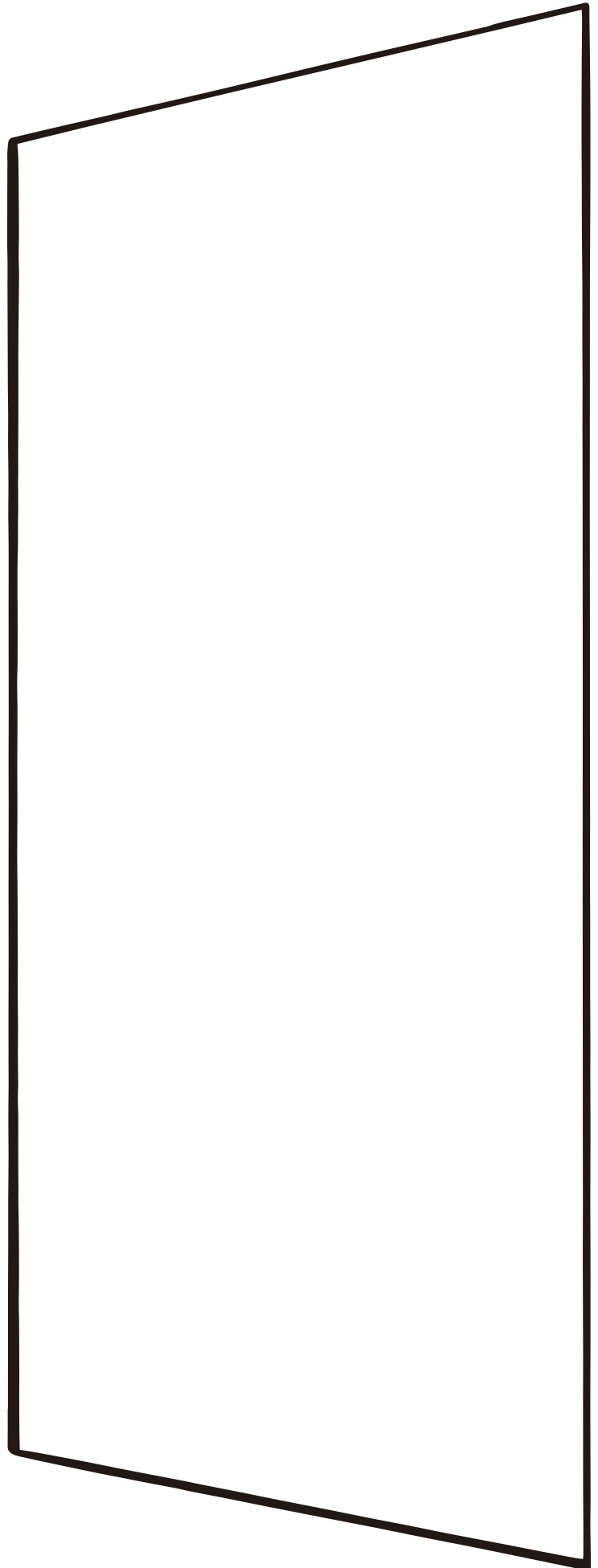
2023 ARKO Art Center

Invitational Exhibition

Nho Wonhee: You were t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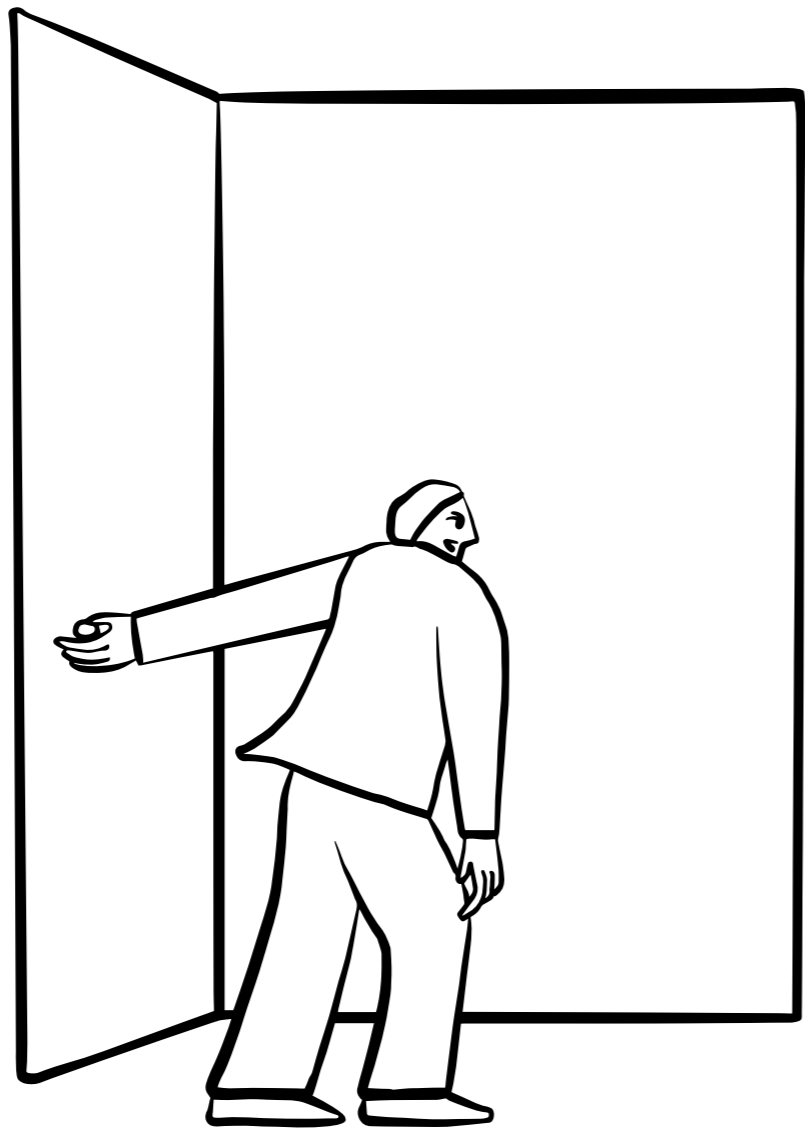
August 11 — November 19, 2023

ARKO Art Center, Gallery 1, 2



노원희 Nho Wonhee

노원희는 1948년 경북 대구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7년 문헌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고, 1980년 ‘현실과 발언’의 창립동인으로 1990년 해체될 때까지 동인전에 참여했다. 1982년부터 2013년까지 부산 동의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자이자 작가로 활동했다. 노원희의 회화는 시대의 변천에 따른 역사 인식, 현실 인식을 토대로 개인과 집단이 만들어 낸 사회와 정치, 문화의 정황을 심리적 풍경으로 포착했다. 개인전으로 《얇은 땅 위에》(2019, 학교재), 《담담한 기록: 인간사, 세상살이, 그리고 사건》(2017, 아트 스페이스 풀), 《남아있는 풍경: 노원희 1991년 이후》(2006,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1986년 그림마당 민에서의 개인전 등 17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단체전으로는 《미니멀리즘-맥시멀리즘-메커니즈즘 1막-4막》(2022-2023, 아트선재센터, 오르후스미술관), 《2020 부산비엔날레: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2020, 부산현대미술관), 《그림과 말 2020》(2020, 학교재), 《세상에 눈뜨다: 아시아 미술과 사회 1960s-1990s》(2019,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베트남에서 베를린까지》(201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2012 부산비엔날레 - 배움의 정원》(2012, 부산시립미술관), 《민중의 고통: 한국미술의 리얼리즘 1945-2005》(2007-2008, 후추시 미술관, 오타니 기념미술관, 미야코노조시립미술관), 《'99 여성미술제 - 팔쥘들의 행진》(1999,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 광주 5월 정신》(1995, 광주시립미술관), 《민중미술 15년: 1980-1994》(1994,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참여했다.



《노원희: 거기 계셨군요》

아르코미술관 기획초대전은 중진·원로 작가의 신작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그간 펼쳐온 작가의 작업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전시로 2023년도에는 노원희(b. 1948)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노원희는 1977년 개인전을 계기로 본격적인 미술 활동을 시작했고, 1980년 소집단 미술운동 ‘현실과 발언’의 창립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현실과 발언》 창립전은 1980년 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현 아르코미술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정치적 메시지가 강하게 드러난다고 여겨졌던 당시의 사회 분위기로 인해 무산되었다. 개관 50주년을 앞둔 아르코미술관은 작가 노원희를 기획초대전에 초청하여 이러한 역사를 오늘의 관점에서 되짚어 보고, 오랜 시간 작업 활동을 해오며 개인과 사회를 바라본 작가의 관점을 세심히 따라가 보고자 한다.

《노원희: 거기 계셨군요》는 노원희의 1980년대 회화부터 신작 회화, 대형 천 그림, 참여형 공동작업, 신문 연재소설 삽화, 아카이브 등 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130여점의 작품과 자료를 선보인다. 노원희는 민중미술, 부산형상미술, 비판적 현실주의라는 열쇠 말로 언급된다. 그러나 노원희의 그림과 예술 실천의 궤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미술사에 기술된 다양한 사조와 언어에 포착되지 않는 지점을 발견하게 된다. 말 없는 그림으로 발언하기, 인간과 세상에 대한 공감과 연민의 마음, 현실과 역사를 대하는 그의 태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가 붓질로 감각하고 감지했던 시대의 심리적 형상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미술가이자 생활인으로서 목격하고 체험했던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인간사를 회화라는 시각언어를 통해 기록하려는 작가의 예술적 지향점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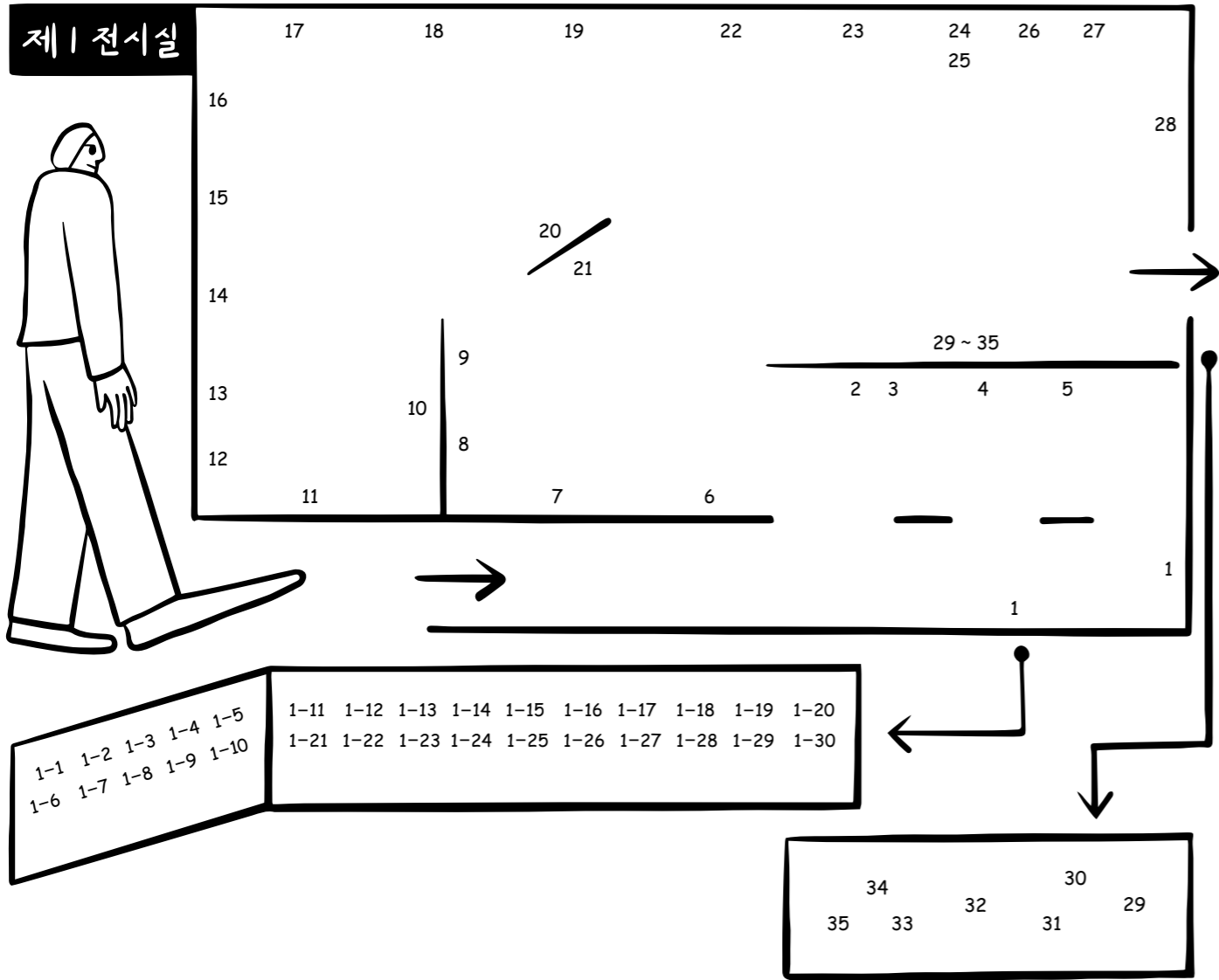
노원희의 그림은 개인과 집단이 경험한 사회의 정황과 심리를 증언한다. 그는 1980년대부터 정치적 억압과 민주화 투쟁 양상이 첨예해지는 시대적 분위기를 간접하게 담아냈다. 사회 변혁 운동의 전선이 사라진 후 정치사회적 혼란과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화된 폭력의 그림자는 일견 담담해 보이는 일상에 드리웠고, 불평등, 모순, 소외의 형태가 사적 차원에서 더욱 정교하게 체감되는 시대로 이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원희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인간 조건에 대한 성찰을 지향하였다. 그의 예술적 실천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회화의 언어로 전달하며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판적 현실주의자로서 노원희가 상투적 현실에서 떼어낸 현실의 진실된 모양새를

탐구하는 방식이자 역사 인식하에 현실을 담담하게 기록하려는 그의 의지와도 관련이 있다. 그의 그림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에서 미시정치로 인해 발생하는 교묘한 억압과 폭력의 구조가 모호하게 감지되지만 할 때, 현실을 직면하는 밝은 눈이 되어주고 현실 너머의 현실을 모색하는 창이 되어준다.

전시는 사회 문제를 향한 발언과 의지의 표현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제1전시실**에서는 1980년대부터 노동자와 권력의 형상을 다뤘던 연장선상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비롯된 산업재해와 피해자 개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신작을 선보인다. 산업재해의 피해자들은 우리 시대에 생존과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 받는 청년, 노동자, 투쟁하는 사람들의 서사로 연결된다. **제2전시실**에서는 작가가 여성으로서 겪은 여성 서사에 대한 관심과 일상, 사적 공간에 침투하는 폭력과 억압 그리고 인류 보편 서사에 대한 작가의 성찰을 보여준다. 개인의 삶과 가정, 부엌과 같은 사적 공간에 드리운 사회적 억압과 배제는 사적 공간이 사회적 공간이고 정치 투쟁의 장소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한다.

작가에게 궁극의 지향점은 단순한 재현을 넘어 개인과 사회의 근원적 정황을 형상화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감춰진 노동과 몸의 형상화를 통해 사회적 타자와 존재들이 펼쳐내는 연대의 이미지를 발견하기를 기대한다. 전시의 제목 “거기 계셨군요”¹⁾는 사회 바깥에 남겨진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이다. 이 부름의 말은 그 사람의 자리를 확인하고 이후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일종의 호명이다.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호명은 이후 전개될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다. 고통의 삶에 마음을 보태고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고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사회의 변화는 시작되며, 이는 노원희가 지향하는 ‘그림과 말’의 힘일 것이다.

¹⁾ “거기 계셨군요”는 작가 노트에서 가져왔다. 작가는 영화 『라스트 왈츠』(1978)에서 밴드의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커튼을 치자 관객이 앉아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했던 대사 “거기 계셨군요”를 인용한다. 이어 현실과 발언이 한 시대의 역사로, 기록으로 남았고 그 선언의 의미가 변했다는 것에 빗대어 “거기 안 계시는군요”로 바꿔 적는다. 전시의 제목 “거기 계셨군요”는 노원희의 그림에서 호명하는 개인의 자리, 그리고 인간의 삶이 이어지는 시간을 떠올리는 것으로, 나아가 우리가 꿈꾸는 다음 사회의 도래를 은유한다.



- 1 몸, 2018-2019 (30)
- 1-1 <몸 50>, 2019, 캔버스에 아크릴릭, 33.7×45.5cm
 - 1-2 <몸 21>, 2019, 캔버스에 아크릴릭, 30×45.5cm
 - 1-3 <몸 42>, 2019, 캔버스에 아크릴릭, 30×45cm
 - 1-4 <몸 17>, 2018, 캔버스에 아크릴릭, 30×45.5cm
 - 1-5 <몸 24>, 2019, 캔버스에 아크릴릭, 34×45.5cm
 - 1-6 <몸 47>, 2019, 캔버스에 아크릴릭, 33×45.5cm
 - 1-7 <몸 49>, 2019, 캔버스에 아크릴릭, 33.5×45.5cm
 - 1-8 <몸 32>, 2019, 캔버스에 아크릴릭, 38×45.5cm
 - 1-9 <몸 35>, 2019, 캔버스에 아크릴릭, 33.3×45cm
 - 1-10 <몸 27>, 2019, 캔버스에 아크릴릭, 33.5×45.5cm
 - 1-11 <몸 22>, 2019, 캔버스에 아크릴릭, 30×45cm
 - 1-12 <몸 19>, 2018, 캔버스에 아크릴릭, 30×45cm
 - 1-13 <몸 16>, 2018, 캔버스에 아크릴릭, 30.5×45cm
 - 1-14 <몸 8>, 2018, 캔버스에 아크릴릭, 30×45cm
 - 1-15 <몸 6>, 2018, 캔버스에 아크릴릭, 30×45cm
 - 1-16 <몸 11>, 2018, 캔버스에 아크릴릭, 30×45cm
 - 1-17 <몸 10>, 2018, 캔버스에 아크릴릭, 30×45cm
 - 1-18 <몸 5>, 2018, 캔버스에 아크릴릭, 33.5×45cm
 - 1-19 <몸 46>, 2019, 캔버스에 아크릴릭, 30.5×45cm
 - 1-20 <몸 1>, 2018, 캔버스에 아크릴릭, 34×45.5cm
 - 1-21 <몸 48>, 2019, 캔버스에 아크릴릭, 30×45cm
 - 1-22 <몸 38>, 2019, 캔버스에 아크릴릭, 33.5×45.5cm
 - 1-23 <몸 41>, 2019, 캔버스에 아크릴릭, 38×46cm
 - 1-24 <몸 30>, 2019, 캔버스에 아크릴릭, 38.5×45.5cm

- 1-25 <몸 43>, 2019, 캔버스에 아크릴릭, 33.5×45.5cm
- 1-26 <몸 34>, 2019, 캔버스에 아크릴릭, 37.5×45.5cm
- 1-27 <몸 45>, 2019, 캔버스에 아크릴릭, 38×46cm
- 1-28 <몸 31>, 2019, 캔버스에 아크릴릭, 33.5×45.5cm
- 1-29 <몸 15>, 2018, 캔버스에 아크릴릭, 30×45cm
- 1-30 <몸 26>, 2019, 캔버스에 아크릴릭, 33.5×45cm

1980년대 한국의 사회운동은 변혁적인 민족민중운동으로 나아가며 삶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탐구했다. 그리고 치열한 저항운동의 결실로 오랜 군부독재 하에 빼앗긴 정치적 자유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80년대 민중문화운동을 추동한 거대서사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1990년대에 이르러 문화계 전반에 걸쳐 투쟁의 전선이 사라지고 서구의 포스트모더니즘이 유입되면서 1980년대 문화운동의 비판적, 도덕적 비전의 무게를 벗어난 감각적인 신세대 문화가 등장한 것이다. 급변한 시대의 그늘 속에서 민중미술가들 또한 정신적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 방랑과 고뇌를 거듭하였고, 나아가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성찰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당시 노원희는 시대의 새로운 비전이나 매체미술 같은 표현 방식과 어법에 끌리기보다 삶의 저변에 여전히 건재한 현실 사회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러한 변환의 시대를 살아가는 목적자이자 화가로서 그는 시대의 변화가 일으킨 정황을 감지하고 이를 캔버스 위에 반영했다. 그의 회화는 한 시대가 저물고 그 잔재들이 다시 재구성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단절, 전환,

연속의 국면을 드러낸다. 그림에 드리운 무거운 공기와 부재의 그림자는 시대의 뒷모습이자 현실의 모습을 만들고 리얼리티의 외상을 드러낸다.

- 2 <아이 1>, 1990, 캔버스에 아크릴릭, 53.5×45.5cm
- 3 <아이 2>, 1990, 캔버스에 아크릴릭, 65.5×53cm
- 4 <공원을 떠나는 시간>, 2016, 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 91×117cm
- 5 <사라지는 모습>, 2001,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3×162.1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 6 <창>, 1980, 캔버스에 유채, 59×71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 7 <나무>, 1982, 종이에 유채, 77×432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 8 <한길>, 1980, 캔버스에 유채, 130.3×162.1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 9 <거리에서>, 1980, 캔버스에 유채, 60.6×72.7cm. 개인 소장

노원희의 회화에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발언과 표현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하얀색 사각형, 쓰고 지워진 글자들은 현실의 조각을 유추하게 하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사회구성원들이 체감한 공통의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한국 사회 구조의 심각한 모순은 2009년 용산 참사, 2009년부터 진행된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요구와 농성, 2014년 세월호 사건, 2016년 국정농단 등과 같은 사건이 벌어질 때 포착된다. 그리고 이후에 개인과 집단에 외상을 남긴다.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난 뒤 사람들의 정서는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거나 다른 시공간에서 새로운 의지로 출현되기도 한다. 작가는 당시의 현실을 연극 무대와 초현실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사건 후 책임회피를 위해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관계자들의 형상을 그리거나, 도시에서 목격했던 시위 현장의 가라앉은 정동을 표현했다. 또한 사건 당사자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그리기도 했는데, 그 존재들은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또 다른 사회적 사건에 다가가 연대하고 함께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다. 얇은 색 막이나 붓질로 만든 터치의 두께 차이, 세밀하게 묘사된 형상, 쓰인 메시지들, 실루엣으로만 그려진 사람들의 동작 등이 평면 공간의 깊이를 형성해 내면서 개인과 공동체가 겪은 실존의 무게를 전해준다.

- 10 <긴급뉴스>, 1986,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3×162.1cm. 개인 소장
- 11 <출몰무대>, 2017, 캔버스에 유채, 130.5×162.5cm
- 12 <거리벽화 연습 1-심리전의 심리>, 2013, 캔버스에 유채, 60.5×73cm
- 13 <청와대 길목 1>, 2014, 캔버스에 아크릴릭, 72.5×91cm
- 14 <화력발전소>, 2022, 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 162×130cm
- 15 <기념비자리-불타는 망루>, 2010, 캔버스에 아크릴릭, 파스텔, 91×117cm
- 16 <말의 시작>, 2015, 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 162×130.5cm
- 17 <국가의 무력>, 2017, 캔버스에 유채, 162×130cm. 개인 소장
- 18 <얇은 땅 위에>, 2019, 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 162×130.5cm (2)
- 19 <기념비 자리 2>, 2018,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5×162cm
- 20 <37년>, 2022, 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 162×13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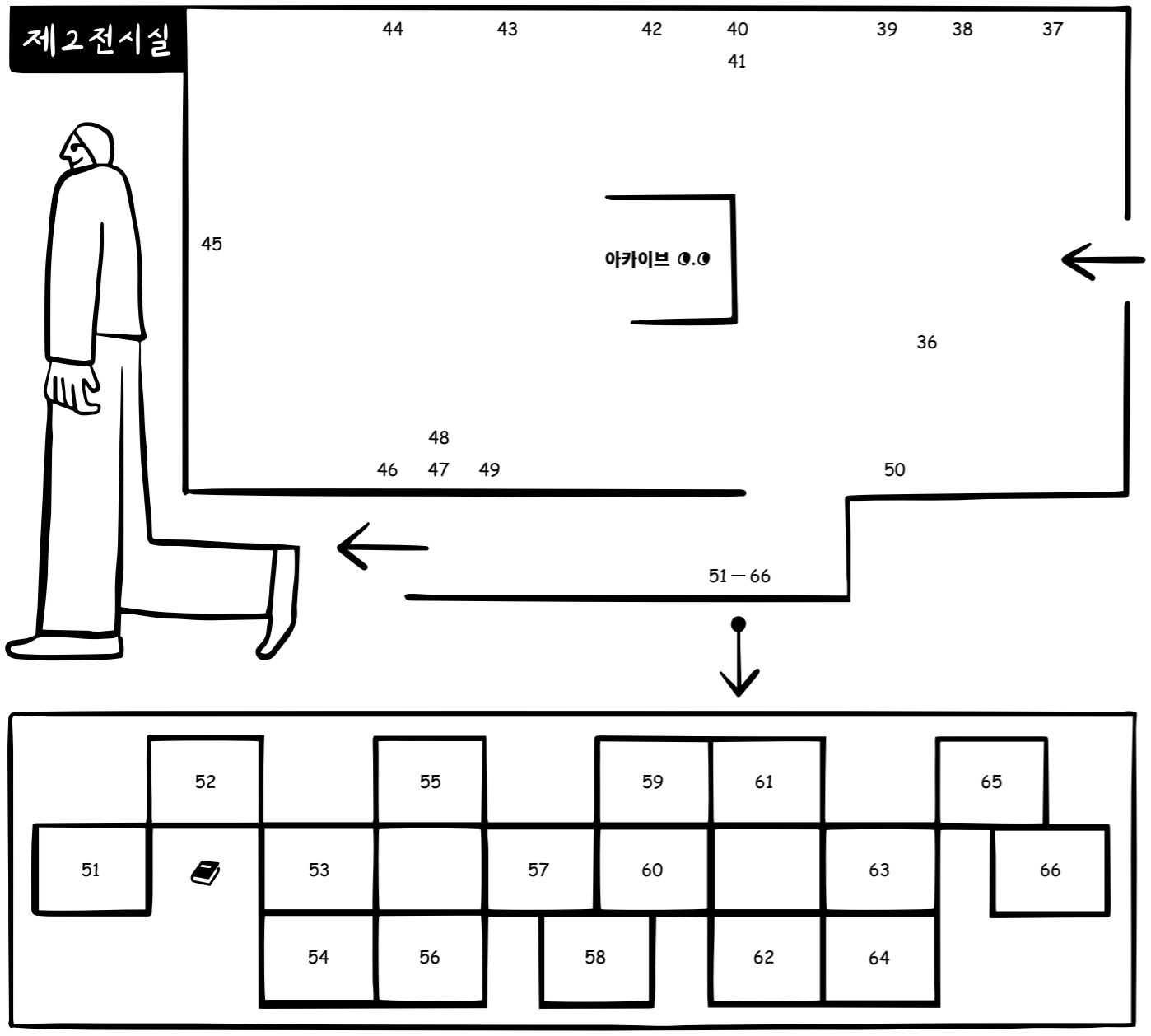
산업재해는 오늘날 한국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노동착취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에 대한 연작은 신문,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는 현실이자, 산업재해를 겪거나 희생당한 노동자, 학생 등 시민인 동시에 개인이기도 한 이들에 대한 생생한 현실 기록에 가깝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먹고 사는 것에서부터 아침저녁 시간까지 자본주의 노동 시스템 안에서 체화되고 소비 경제체제에 포획된 몸이지만, 그러한 사실은 일상적 차원에서는 가시화되지 않는다. 산재는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시스템이 선사하는 환상의 이면을 개인의 몸에 선명하게 새기며,

신체장이나 수많은 죽음으로 그 모순을 가시화한다. 이 연작에서는 산재 이후 개인의 삶에 남겨진 고통과 남은 자들의 증언을 통해 하청과 외주화라는 왜곡된 노동시장의 모습을 확인하게 한다. <사복으로 갈아입히고>(2023)에서는 최근의 여러 산재 사고들, 즉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SPC 계열사 제빵공장 소스 배합기 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 사고와 같이 구멍 난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희생된 형상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인다. <사복으로 갈아입히고>, <큰 회사>(2023)에는 작가의 회화에 줄곧 등장해 말을 하는 하얀 사각형을 대신하여 캔버스 표면에 얇은 천이 포스트잇처럼 부착된다. 하얀 사각형이 공간을 분할하고 침묵의 말하기를 시도했다면, 표면에 부착된 사각의 천 위에는 산업재해 피해자의 증언을 받아쓰으로써 발화, 즉 '말하기의 기능'을 강화한다. <탑>(2023)은 해변대 인터넷 카페에서의 월남전 당시 찍은 사진을 원용한 작품이다. 국가는 베트남 전쟁을 통해 근대화과 자본이 팽창하는 기회로 삼았다. 국가의 개입 하에 자본을 확장하려는 욕망은 성장 중심의 자본주의 모습을 드러낸다. 작가는 참전 용사들의 건장한 신체와 산업재해 피해자의 취약한 신체를 겹쳐 그리며, 의수와 의족을 끼고 아슬아슬한 포즈로 서로를 지탱하고 있는 몸의 탑을 통해 한국 산업노동의 모습을 재현한다.

- 21 <탑>, 2023,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162cm (3)
- 22 <큰 회사>, 2023, 캔버스에 아크릴릭, 천 콜라주, 80×100cm
- 23 <사복으로 갈아입히고>, 2023, 캔버스에 아크릴릭, 천 콜라주, 162×130cm (3)
- 24 <병원 1>, 2022, 캔버스에 아크릴릭, 91×117cm
- 25 <씩씩한 청년>, 2023, 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 91×117cm
- 26 <과로사>, 2020, 캔버스에 아크릴릭, 53×73cm
- 27 <출근>, 2022, 캔버스에 아크릴릭, 91×117cm
- 28 <보호자>, 2022, 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 130×162cm

1997년 IMF 외환위기는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야기했던 계기로, 새로운 금융축적의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고 삶의 영역을 잠식해 나가던 시간대의 시작이다. 작가는 자기 계발 열풍이나 치열하게 경쟁하며 사는 삶의 표본을 회의하고, 실업, 백수 등을 주제로 한 <낮잠 좀 자지 마세요>(2005), <너나 열심히 하세요>(2015) 등의 작품으로 IMF 이후 감지된 집단 정서를 담아냈다. 1999년 <아침운동>은 '웰빙' 열풍이 불던 시기, 건강한 몸을 가꾸는 데 열심인 세태를 다루고 있으며, 2023년 <아침운동 2023>은 미세먼지로 가득한 오늘날의 생활환경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24년 전 <아침운동>의 변주라 할 수 있다. 한편, 현시대의 청년은 공동체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잠재성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극도의 생존경쟁이라는 현실에 노출되어 있다. 청년의 고단한 삶은 <라면 먹는 사람들>(2002)에서 소산한 정후로 기시감을 느끼게 하고, <사발면이 든 배낭>(2016)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사고로 사망한 19살 김 씨의 형상으로, 또는 <청년의 봄>(2003)을 통해 누군가 바랐던 꿈과 잠으로 이어진다.

- 29 <라면 먹는 사람들>, 2002, 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 116.5×91cm
- 30 <낮잠 좀 자지 마세요>, 2005, 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 60×73cm
- 31 <사발면이 든 배낭>, 2016, 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 91×117cm
- 32 <아침운동 2023>, 2023,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162cm
- 33 <너나 열심히 하세요>, 2015, 캔버스에 아크릴릭, 파스텔, 72.5×91cm
- 34 <청년의 봄>, 2003, 캔버스에 아크릴릭, 60.5×72.5cm
- 35 <아침운동>, 1999, 캔버스에 아크릴릭, 91×116.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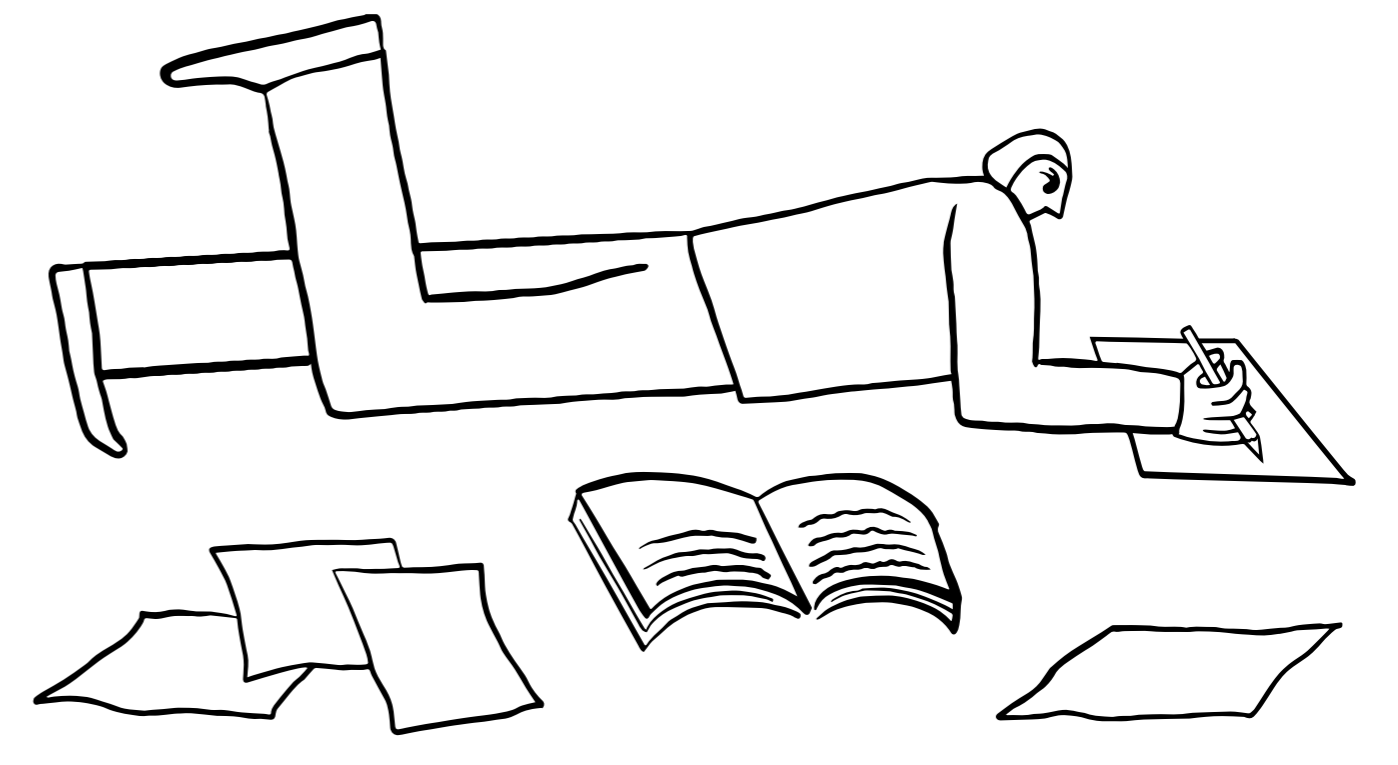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젠더 문제들이 가시화되고 일련의 사건들이 소용돌이 칠 때, 노원희는 여성으로서 자신을 일깨우고 여성 서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일상과 사적 공간에 침투하는 폭력과 억압, 그리고 혐오의 정치를 목격하며 작가는 사회 현실과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내비친다. 여성 개인의 서사를 담고 있는 노원희의 작품들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관습에 질문을 던진다. 작가가 미디어에서 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린 이주 여성 이야기, 베트남 전쟁 참전 후 고엽제 피해를 입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얼룩진 가정사는 여성 인권의 문제가 정치사회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한편, 사회 재생산에 있어 실질적 역할을 하는 여성의 노동은 쉽게 비가시화되거나 사적 차원으로 축소되곤 한다. 2001년 <오래된 살림살이>에서는 살림살이에 위태하게 발을 딛고 있는 모습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작가의 부담감을 내비쳤다. 2018년 <무기를 들고>는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 캠페인”(Wages for Housework Campaign)이라는 1970년대 미국 여성운동의 캠페인을 떠올리며 그린 것이다. 살림살이를 무기처럼 들고 항의하는 인물들은 당시 한국의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을 지지하는 여성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 36 <즐거운 바느질 시간>, 2020(2023년 설치), 천에 실, 실크스크린, 디지털 사진 재가공, 가변 크기
* 《그림과 말 2020》(학교재, 2020) 연계 프로그램의 공동 제작 작업을 재가공 및 설치
- 37 <생애 2>, 2010,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5×162cm
- 38 <홍제천에서 1>, 2021, 캔버스에 아크릴릭, 73×91cm
- 39 <근본불안>, 2022-2023, 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 162×130cm
- 40 <참전이야기 1-밥상개는 남자>, 2018, 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 80.5×100cm
- 41 <참전이야기 2-맘말이 아파요>, 2018, 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 112×145cm
- 42 <인류의 고민>, 2018, 캔버스에 아크릴릭, 91×116.5cm
- 43 <무기를 들고>, 2018, 캔버스에 유채, 162×130.5cm (2)
- 44 <포럼>, 2017, 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 130.5×162cm
- 45 <몸 53>, 2023, 천에 젯소, 337×955cm
* 제작 참여: 윤결, 정덕현
- 46 <오래된 살림살이 2>, 2019, 캔버스에 아크릴릭, 100×80.5cm
- 47 <수수께끼>, 2004, 캔버스에 아크릴릭, 71.5×91cm
- 48 <대청소를 할 때에>, 2003, 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 71.5×91cm
- 49 <오래된 살림살이>, 2001, 캔버스에 아크릴릭, 91×117cm
- 50 <자화상 '95 (자화상 2)>, 1995, 캔버스에 아크릴릭, 73×100cm

아카이브 0.0

아카이브 섹션은 교육자이자 ‘현실과 발언’ 동인이었던 노원희의 활동과 미술에 대한 생각을 자료를 통해 보여준다. 1977년 문헌화랑에서의 첫 개인전, 문화예술진흥원 미술화관에서의 현실과 발언 창립전, 동산방 화랑에서의 창립전 도록과 구성원들의 사진, 제3세계 미술과 행복을 주제로 한 현실과 발언의 워크숍 문서,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저항 운동과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시기인 1986년 그림마당 민에서의 개인전 리플릿과 사진, 동시대 교수 재임 당시 1986년 시국선언에 참여한 동료 교수 해직 철회와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는 입장문, ‘5.3 동시대 사건’으로 학생들이 선고받은 형벌과 교수 해직의 부당성에 대해 이야기한 신문 칼럼 등을 접할 수 있다. 또한 민중과의 소통에 대한 글, 정치적 미술을 지향하는 행동주의 공공미술에 대한 논고에서는 작가의 미술에 대한 저항성과 그림을 이루는 생각의 토대를 살필 수 있다.

한편, 노원희의 그림에서는 다양한 인간의 형상, 포즈를 발견할 수 있다. 형상을 그리기 위해 작가가 가족과 본인의 몸동작을 찍은 일련의 사진들은 회화의 재현 과정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사진 자료에서는 작업의 즐거움과 생활의 기쁨을 포착할 수 있다.



신문 연재 소설 『바리데기』 삽화

이번 전시에서는 소설 『바리데기』 연재 당시의 신문 스크랩북과 삽화 회화를 선보인다. 노원희는 『한겨레』 신문에 연재되었던 황석영의 소설 『바리데기』(2007년 1월 3일-6월 20일) 삽화를 그렸다. 이 삽화는 소설의 원고를 1회분씩 받아 그림을 그려야 하는 삽화 작업의 특성상 연재 기간 동안 매일 그려졌다. 노원희의 삽화는 황석영의 소설에 호응하며 121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소설 『바리데기』의 묘미인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판타지적 묘사와 함께 노원희의 삽화는 이국적이고 초현실적인 장면을 담아낸다. 105회 삽화는 『바리데기』 소설의 주인공인 바리의 꿈속에서 실종된 남편 알리가 닭장 같은 철망 안에 갇혀 웅크리고 있는 장면을 그렸는데, 이 인물의 형상은 <몸> 연작의 출발점이 된다. 『바리데기』 삽화 연작은 작가의 기존 회화와는 다른 경향의 작품이지만, 주인공 바리처럼 영겁의 삶을 담담하고 묵묵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서사는 노원희가 그동안 주목했던 개인의 삶의 형상을 비춰 볼 수 있게 한다.

- 51 <3회: 내다 버렸으니 ‘바리’라고 부르지비>, 2007, 캔버스에 아크릴릭, 38×45.5cm
- 52 <10회: 환갑의 흰둥이가 새끼 얼굴을 낳았다>, 2007, 캔버스에 아크릴릭, 38×45.5cm
- 53 <19회: 바리아, 나 죽을 뻔 했어>, 2007, 캔버스에 아크릴릭, 30×45cm
- 54 <17회: ‘나랏님’이 돌아가신 해부터 기근이>, 2007, 캔버스에 아크릴릭, 30×45cm
- 55 <29회: 현이 몸 위에 검은 연기같은 것이>, 2007, 캔버스에 크레파스, 연필, 30×45cm
- 56 <31회: 밥 해먹구 빨래허구 하던 그 물이 약속다>, 2007, 캔버스에 아크릴릭, 30×45.5cm
- 57 <37회: 불지옥 산속을 기듯이 헤치고>, 2007, 캔버스에 아크릴릭, 크레파스, 30×45cm
- 58 <27회: 공안 단속을 피해 산에 움집을 지었다>, 2007, 캔버스에 아크릴릭, 30×45cm
- 59 <40회: 발마사지 업소에서 잔심부름을 했다>, 2007, 캔버스에 아크릴릭, 크레파스, 30×45cm
- 60 <54회: 늘어진 시신들은 바다에 내던져지고>, 2007, 캔버스에 아크릴릭, 30×45cm
- 61 <68회: 검은 구름과 무더기로 쓰러진 흑인 아녀자들이 떠올랐다>, 2007, 캔버스에 아크릴릭, 크레파스, 30×45cm
- 62 <85회: 우리는 잠무 카슈미르에 살았지>, 2007, 캔버스에 아크릴릭, 33×45.5cm
- 63 <89회: 신이여 두 사람을 축복하소서>, 2007, 캔버스에 아크릴릭, 33×45cm
- 64 <90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축복하며>, 2007, 캔버스에 아크릴릭, 33×45cm
- 65 <91회: 아가야 우주 섭리는 하나란다>, 2007, 캔버스에 아크릴릭, 연필, 33×45cm
- 66 <99회: 형을 못 만났어요? 헤어졌소, 만나자마자>, 2007, 캔버스에 아크릴릭, 33.5×45.5cm

신문 연재 소설 『바리데기』 스크랩북

2023 아르코미술관 기획초대전

《노원희: 거기 계셨군요》

2023. 8. 11 - 11. 19

아르코미술관 제1, 2전시실

아르코미술관

03087 서울 종로구 동승길 3

02-760-4850

www.arko.or.kr/artcenter

인스타그램 @arko_art_center

페이스북 ARKOArtCenter

트위터 @ArkoArtcenter

유튜브 @arkoart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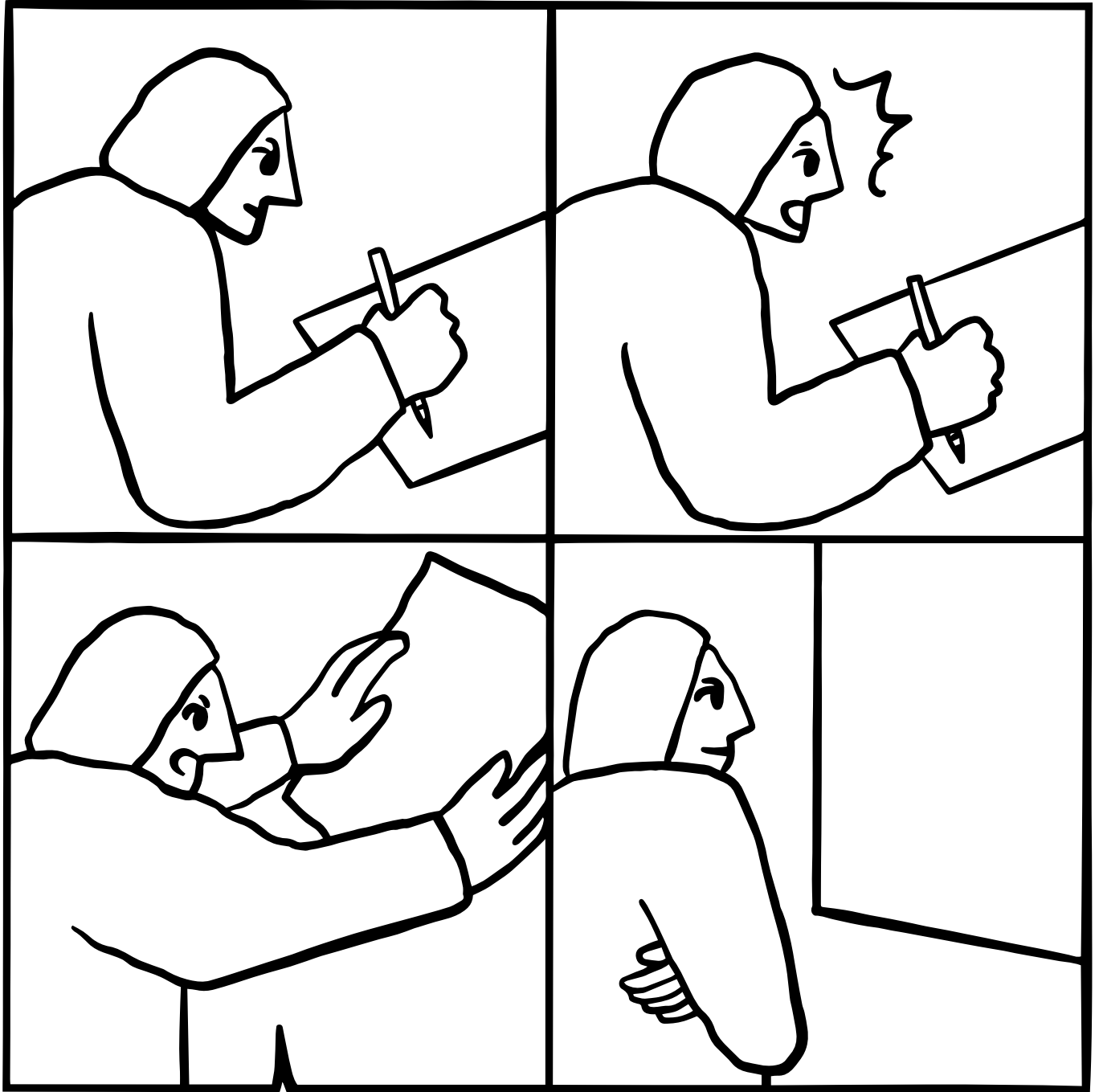
관람 시간:

오전 11시 - 오후 7시

매주 월요일, 추석 당일 휴무

관람료 무료

작가: 노원희



거기 계셨군요 YOU were there